

**환 경 부
보도자료**

- ☐ '04. 7. 배포
☐ 사진없음
☐ 총 3쪽

2004년 7월 12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이재현 과 장
김정환 사무관

전화
(배일)

02-2110-6683
ecolover@me.go.kr

2. 환경산업의 중국진출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 ◇ 10개 투자 최우선지역 선정, 10개 시범프로젝트 추진
- ◇ 한·중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우리기술의 현지 시장화 등 15개 과제 제시

- ☐ 우리 환경산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 ☐ 환경부는 年 20%대로 급성장하는 중국 환경시장에의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환경산업 對중국 진출 촉진전략」을 마련·발표하였다.
 -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한·중 환경산업센터 운영, 환경산업투자 포럼의 개최 등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에 수립된 전략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동 전략은 2차례의 업체·전문가 합동토론회와 환경부장관-환경업체CEO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점을 파악, 이를 해소·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마련하였기 때문에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이번에 수립된 전략은 중국 환경시장 현황, 국내외 진출여건, 세부 전략과 추진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내에서도 시장 전망이 높은 10개 지역 (省 또는 市)을 선정하여 각 지역별로 시범 프로젝트를 한 개씩, 총 10개를 발굴·추진하여 수주규모가 크고 연계설비의 동반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플랜트의 수출에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우선 진출지역은 중앙정부의 투자정도, 경제규모, 교류·협력관계를 고려하고 전문가와 업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상해시, 요녕성, 북경시 등 10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추후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수출 유망기업의 자금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EDCF, 수출금융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한·중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우리 기술의 현지 시장화 역시 모색할 예정이다.

※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

- 아울러 양국 기업·정책 정보에 대한 공유시스템 마련, 중국 시장정보의 수집·제공기능 강화, 한국 환경산업·기술 지방순회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 그 밖에 중국진출을 위한 국내기반을 강화하고자 환경산업 육성책을 병행하며, 미래 환경기술 개발에도 계속 주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가 어느정도 완비되어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국내 환경시장의 성장률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국을 기점으로 세계 환경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전략의 이행을 통해 환경산업의 수출전략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중국 환경시장 현황 및 진출현황
2. 「환경산업 對중국 진출 촉진전략(책자)」 (별도배부)

중국 환경시장 현황 및 진출 현황

1] 중국 환경시장 현황 및 전망

- 지속적인 경제성장, '08년 올림픽 유치 등으로 중국의 환경시장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年 19.8%의 성장이 전망
 - 10차 5개년 계획 기간('01~'05) 중 환경부문에 총 112조원을 투자
 - 차기 11차 5개년 계획 기간('06~'10)에도 최소 200조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

<중국 환경오염개선 투자액 추이(1998~2002)>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증가율
총 투자액 (억 위안)	723	820	1060	1106.6	1363.4	18%
GDP 점유율 (%)	0.92	1.00	1.10	1.15	1.33	8%

2] 중국진출 현황

- 환경산업의 중국 수출(수주) 실적은 '02년 2,490억원, '03년 1,042억원 ('03년 해외 수출실적 : 5,819억원)
 - 중국진출 업체의 수는 67개('02)에서 72개('03)로 증가하였으며, 5억원 이상 수주업체의 수도 12개('02)에서 20개('03)로 증가 추세
- ※ 조사방법 : 2002년 환경산업통계 조사시 회신업체(4,667개) 중 해외진출 업체 117개 업체를 대상 조사 및 언론보도 사항 취합·정리
- 「한·중 환경산업센터(북경 소재)」 입주업체는 '03.12월 현재 총 287억원('01 17억, '02 61억, '03 209억원)을 수주

환경산업 對중국 진출 촉진전략

2004. 6

환경부
환경정책실

목 차

I. 중국 진출의 필요성	1
II. 중국 현황 및 환경시장 분석	
1. 정치·경제현황	2
2. 환경관리현황	3
3. 환경기술 및 산업현황	5
4. 환경시장 분석	7
III. 국내 환경산업현황 및 진출여건	
1. 국내 환경산업 현황	9
2. 한·중 환경산업협력 추진현황	10
3. 중국 진출여건(SWOT) 분석	13
IV. 대중국 환경산업 진출의 향후 전략	15
V. 중국 진출을 위한 세부방안	16

V-1. 중국 진출전략의 선택 · 집중화

1. 중점 진출지역·분야의 선정 17
2. 지역별 유망 시범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19
3. 진출 거점의 지방화 20
4. 수출유망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 활용 21
5.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우리기술의 현지화 도모 22

V-2. 현지 진입장벽의 완화

1. 양국 정책 · 산업 정보의 공유 23
2. 중국 현지정보의 수집·제공 24
3. 우수 환경기술·산업의 홍보 강화 25
4. 초청연수 확대 실시 26
5. 한·중 환경산업센터의 전략적 활용 27
6. 양국 민·관 교류 및 협력의 지속 추진 28

V-3. 국내 기반여건의 조성 및 강화

1.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29
2. 산하기관 및 지자체별 지역 전담제 도입	29
3.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책 병행	30
4. 미래 환경기술의 개발	31

VI. 전략 추진일정	32
-------------------	----

VII. 참고자료

1. 중국 진출 성공·실패사례	39
2. 중국 국가환경보호 10·5 계획	42
3. 중국 환경시장 참고자료	46
4. 중국 의료폐기물 관리동향	48

I. 중국 진출의 필요성

□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WTO 가입, '08년 올림픽 유치 등으로 환경시장이 급성장

- 중국의 환경시장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연 19.8% 성장이 전망
- 10·5 기간('01~'05) 중 환경부문에 총 112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11·5 기간('06~'10)에도 1.5~2배 이상 투자증대 전망

* 원자바오 총리는 제10기 전인대 2차회의 개막식('04.3.5)에서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해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을 선언

□ 우리 환경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중국 시장에 지리적·문화적 접근이 용이하며, 기술·가격 경쟁력 등에서도 강점을 보유

- 오·폐수 처리 등 사후처리기술은 이미 상업화 수준에 도달, 지난 30년간 경험을 통해 중국이 실제로 선호하는 기술력 보유
- 정상회담, 환경장관회의 등 정부간 교류·협력관계를 통해 초기 진입에 필요한 토대 마련

□ 내수 환경시장의 성장률 둔화에 대비, 해외시장을 적극 발굴 하여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 확보 시급

- ET의 21세기 수출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환경산업의 구조 강화
- * 국내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가 어느정도 완비되어감에 따라 추후 국내 환경 시장 성장률의 저하 전망

II. 중국 현황 및 환경시장 분석

1 정치·경제현황

- 2002.11월 중국 공산당 제16차 당대회를 통해 후진타오 총서기 등 제4세대 지도부 구성 후 **안정세 지속 유지**
 - 제10기 全人大 1차회의('03.4월)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우방궈(吳邦國) 全人大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선출
- 최근 5년간 연평균 8%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무역시장에서 "Big Buyer"로 부상**
 - 2003년 중국 경제는 전년 대비 9.1%의 높은 GDP 성장률 달성
 - 2003년 무역액은 8,512억불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무역국으로 부상
 - * '03년 중국 경제현황 : 총 GDP 1조 4천억불(5위), 수출액 4,384억불(4위), 수입액 4,128억불(3위), 외환보유고 4,033억불(2위)
- **한·중 양국간 교역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570억불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日, 美에 이은 3위의 수입국**

	2001년	2002년	2003년
• 對中수출(억불)	181.9	237.5	351.1
• 對中수입(억불)	133.0	174.0	219.1
• 무역흑자(억불)	48.9	63.5	132.0

2 환경관리현황

□ 환경오염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국가발전의 제약요소로 등장하면서 '90년대 후반 관련법규 정비, 「국가환경보호 10·5 계획」 실시

- 국가 중점사업으로 「三河,三湖,兩控區,一市,一海(33211) 프로젝트」, 「三峽댐 건설지역과 南水北調工程 수질오염 방지」 추진

* 33211 프로젝트 : 三河(淮河, 海河, 遼河), 三湖(太湖, 巢湖, 滇池), 兩控區(산성비 및 아황산가스 규제지역), 一市(北京市), 一海(渤海)

- 2003년 상반기 SARS 발생을 계기로 의료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투자를 확대

* 「위험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계획('04.1.19일)」에 따르면 2006년까지 약 149억위안(약 2.24조원)을 투자할 계획

□ 경제적 수단, 총량규제 등 선진 환경관리정책 도입

- 청정생산, 지역경제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경제정책과 오염개선 등 환경보전 정책을 통합하여 실시

-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배출부과금 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등 경제적 환경관리수단 강화

- 환경기초시설 건설·운영의 정부 유일 투자구조에서 민영화를 통한 투·융자 시스템의 다원화 추진

* 국가발전계획위원회(現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건설부, 환보총국 공동으로 「도시 하수/폐기물처리장 산업화에 관한 의견」 발표('02.9.10일)

〈참고자료〉

■ 西部대개발 사업

- 추진배경 : '99.6월 江澤民 총서기의 제의와 '00.3월 朱鎔其 총리의 서부대개발계획 발표 후 본격 착수
- 사업내용 :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하여 국토 균형발전 및 내수 확대를 도모
 - 동서간 격차 심화에 따른 불만 해소 및 사회안정 추구
 - 생태환경보호, 기초시설 대형프로젝트 추진, 농민의 생산·생활조건 개선, 에너지 개발 추진
 - * 서부지역 : 사천, 귀주, 내몽고 등 12개 성·자치구와 직할시를 포함(국토면적의 17%, 총인구의 29%, GDP의 17% 점유, 광물자원의 50% 매장)
 - * 생태환경보호 4대 중점사업 : 경작지 환원, 조림, 산림녹화, 천연림 보호
 - * 오염개선사업 : 하천유역 도시하수처리장 및 쓰레기 처리장 건설
- 투자계획 : 우선 2005년까지 青藏鐵路, 西電東送, 南水北調 등 36개 대형사업에 6,000억위안(90조원) 투자

■ 東北지역 부흥전략

- 추진배경 : 제16차 당대회('02.11)에서 노후한 중공업 지역인 동북 3성(요녕, 길림, 흑룡강)의 국유기업 및 산업구조 조정방침 수립
 - 溫家寶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제4세대 지도부가 본격개발 선언
- 사업내용 : 노후 중공업 위주의 국유기업 구조 조정, 도시 재건을 통해 실업과 빈곤문제 해결, 공업용 원부자재의 생산기지로 육성
- 투자계획 : 1차적으로 100개의 프로젝트에 610억위안(9.2조원) 투자
 - 요녕성 52개 사업(440억위안), 흑룡강성 37개 사업, 길림성 11개 사업

3 환경기술 및 산업현황

□ 전반적인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0년대 중후반의 수준이나 집진기술 등 일부분아에서는 빠른 속도로 기술력 성장

- 첨단기술, 고효율 설비, 자동화 시스템 등의 분야가 특히 취약
- 하수처리설비, 집진장치, 환경계측장비 등은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
- 10·5계획 기간동안 주요 수입제품의 국산화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 등 10개 분야의 환경기술을 중점 개발중

* 10개 분야 :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폐기물처리, 절수기술, 생태계보호, 청정생산, 측정기기, 처리약품, 환경서비스, 자원재활용

□ '90년대 후반부터 관련 정책·제도가 강화되고 투자가 대폭 증대되면서 환경산업이 급속도로 성장

- 규모면에서 아직까지 초보적인 수준이나 연간수입, 업체수 및 종사자 수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중국 환경산업 발전 추이>

항 목	1993년	1997년	2000년	2002년*
업체수 (개)	8,651	9,090	18,144	20,000
종사자수 (만명)	188.2	169.9	317.6	350
年 매출액 (억위안)	311.5	459.2	1,689.9	2,000
年 이윤액 (억위안)	40.9	58.1	166.7	-

* 자료출처 : 2000년 전국환경보호관련 산업현황 공보 (2002년 자료는 환보총국 과기표준사장 발표자료(04.4.19일) 인용)

- 2000년 현재 환경산업체 수는 18,144개로서 전문업체가 71% (12,806개), 겸업업체가 29%(5,338개) 차지
- * 중국 국내자본기업이 96%(17,367개),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의 투자기업이 2%(366개), 기타 외국투자기업 2%(411개)
- 분야별로는 기존의 환경설비 위주에서 청정제품, 환경서비스, 생태계 보호 등을 포함한 종합산업으로 점차 발전하는 추세

<중국 환경산업의 분야별 현황>

(단위: 억위안, %)

	환경설비	청정상품	환경서비스	폐기물재이용	생태보호	합 계
1997년	182.1	21.6	57.8	181.4	16.3	459.2
	40%	5%	13%	39%	3%	100%
2000년	236.9	281.1	643.4	243.1	285.4	1,689.9
	14%	17%	38%	14%	17%	100%

4 환경시장 분석

□ 선진국 시장이 성숙단계인데 반해 중국 환경시장은 초기단계로 향후 15~20년간 15~20% 성장 전망

- 환경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며, 신규 진입 기업수가 계속 증가세
- 사후오염 처리기술·설비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가격 요소가 구매선택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작용

□ 중국 정부는 10·5계획 기간('01~'05) 동안 총 7,000억 위안 (112조원)을 환경부문에 투자

- GDP의 1.3%, 사회고정투자 총액의 3.6% 규모에 해당

* '02년 실제투자액은 1363.4억위안(약 22조원, GDP의 1.33%)으로 전년대비 23.2% 증가

<중국 환경오염개선 투자액 추이(1998~2002)>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증가율
총 투자액 (억 위안)	723	820	1060	1106.6	1363.4	18%
GDP 점유율 (%)	0.92	1.00	1.10	1.15	1.33	8%

□ 차기 11·5 계획 기간('06~'10)에도 환경부문의 투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쑤인대 10기 2차회의('04.3월)에서 지역격차 해소, 환경보전 등에 역점을 둔 '인본주의 균형발전론'을 천명

- 분야별로는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도시 환경기초 시설 건설에 절반 이상 투자

<분야별 투자액 추이(1998~2002)>

	1998	1999	2000	2001	2002
총 투자액(억 위안)	723 (100)	820 (100)	1,060 (100)	1106.6 (100)	1363.4 (100)
도시환경기초시설	456.0 (63.2)	478.9 (57.5)	561.3 (52.9)	595.7 (53.8)	785.3 (57.6)
산업부문 노후오염원 개선	122.0 (17.2)	152.7 (18.3)	239.6 (22.6)	174.5 (15.8)	188.4 (13.8)
신규 프로젝트 “三同時”	142.0 (19.7)	191.6 (23.0)	260.0 (24.5)	336.4 (30.4)	389.7 (28.6)

- 지역별로는 국가중점사업 대상지역과 대외개방을 선도해 온 연해지역이 높은 투자액 차지

- 三峽댐(중경, 사천, 호북) 및 南水北調 수질오염방지(화둥구, 중남구) 프로젝트 집중 추진지역의 투자에 우선순위 배정

* 화둥구(강소, 절강, 안휘, 강서, 복건, 산둥), 중남구(하남, 호북, 호남, 광둥, 해남)

- 북경, 산둥, 하북, 호북, 중경 등 5개 省·市에 중점프로젝트 투자액의 45% 이상 투자

* 중점프로젝트(2차 그린프로젝트) : 三河三湖 하수처리장 건설, 兩控區 화력 발전소 탈황설비 공사 등 총 1137개 항목에 총 2620억 위안 투입

- 환경산업체의 매출액(억위안, '00년)은 절강성(245), 강소성(210), 산둥성(187), 광둥성(144) 등 연해지역 4개 省이 전체의 45% 차지

Ⅲ. 국내 환경산업현황 및 진출여건

1 국내 환경산업현황

- 환경기준 강화로 인한 시장 창출과 기업의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환경산업체수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환경부 소관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18개 업종(세분류시 44개)에 따른 환경산업체는 '02년말 현재 12,167개로 조사
 - 환경산업 매출액은 '00년 현재 10.5조원(GDP 대비 2%)으로 산정(환경부·통계청, 2002)
 - * 환경보호지출 총규모는 '02년 중 약 13.6조원(한국은행, 2003.12월)
- 첨단 환경기술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다소 낮으나, 사후처리 등의 분야에서는 기술격차가 상당부분 축소
 - 오·폐수 처리, 집진 등 사후처리기술은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으로 상업화 단계에 도달
-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은 2003년 현재 총 5,819억원(27개국, 199건)으로 총액규모, 진출업체수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총액은 4,018억원('02)→5,819억원('03), 진출 업체수는 78개('01)→89개('02)→117개('03)로 증가

2 한·중 환경산업협력 추진현황

'92년 수교 이후 '02년까지

- '93.10월, 「한·중 환경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협력 시작
 - '94년부터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9차례 개최
 - * 2004년 현재 '환경기술교류협력' 등 16개 공동위 협력사업 추진
- '98.11월, 정상회담시 “환경산업 협력강화”에 합의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
- '99년부터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을 교대 개최
- '01.1월, 북경에 「한국환경산업·기술 상설전시관(韓國環保技術展示廳)」 설치 (現 한·중환경산업센터)
 - 한·중간 환경산업 교류를 위한 구심점 역할 수행 및 중국의 환경 시장정보 수집·제공

'03.7월 정상회담 이후

- 한·중 정상회담 개최('03.7.7일)
 -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11개 합의사항 중 “양국 환경산업 협력강화 및 환경산업투자포럼 개최” 포함
 - * 10대 경협사업으로 환경산업, 금융, 차세대 IT 등을 선정

□ 한·중 환경장관회의 개최('03.7월, 12월)

- 환경산업투자포럼 정례화, EDCF 시범사업 발굴·추진, 공동기술 개발, 환경산업센터 공동운영, 초청연수 등 세부협력사업 합의

〈 양국정상 및 환경장관 합의사항 〉

■ '03.7월 정상회담

- “양측은 환경산업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정부와 업계, 학계 및 관련단체들이 참가하는 한중환경산업투자포럼을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상기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03.12월 제1회 투자포럼을 개최하였으며, '04년 하반기에 제2회 투자포럼 개최 예정

■ '03.12월 장관합의사항 및 이행현황

- ① 공동기술개발 추진 : '04.2월 수요조사 실시, 6월 중 사업착수
- ② 한중환경산업센터 공동운영 : '04.4월 제1회 센터공동운영위 개최
- ③ EDCF 시범사업 발굴 : 2개 사업 발굴
- ④ 장단기 초청연수 실시 : '03년 32명 실시, '04년 32명 이상 예정

□ 제1회 한·중 환경산업투자포럼 개최('03.12.15)

- 양국 정부, 전문가, 산업체 관계자 250명이 참석하여 상호간 환경시장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적 구축방안 토의

- **한국 환경산업·기술 지방설명회 개최**(산동, 호북, 요녕, 사천성)
- 정부, 환경산업협회, 업계 관계자들 공동으로 '환경산업협력단'을 구성하여 기술설명회 및 투자상담회 개최

〈요녕성·사천성 지방설명회 결과(04.4월)〉

■ **기술·투자설명회 개최**

- 우리측은 정부, 11개 업체 등 30명으로 환경산업협력단(단장 : 환경정책실장)을 구성하여 파견
- 중국측은 省정부(부비서장 등), 국가환보총국, 市정부, 업계관계자 등 270여명이 참석

■ **환경산업협력회의 개최**(요녕 3회, 사천 3회)

- 한-지방성 환경산업 협력촉진 공동위원회 구성 합의
- 공동기술개발, 초청연수 등 장관합의사항 이행 협력
- EDCF, 금융협력(신디케이트 Loan 등)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원칙에 합의

* 요녕성은 탈황설비, 사천성은 중소도시 오폐수 및 쓰레기처리시설

■ **기 타**

- 省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省정부 부비서장, 국가환보총국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협력방안 논의

3 중국 진출여건(SWOT) 분석

강 점 (Strength)

- (1)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 정부간 교류를 통해 협력분위기 성숙
 - 4개 省 지방설명회를 통해 환경프로젝트의 실제 이행기관인 지방 정부와도 협력토대가 구축되기 시작
- (2) 환경기초시설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보유
 - 지난 30여 년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중국이 선호하는 기술력 보유
- (3) 선진국 대비 기술·설비의 가격경쟁력 구비
- (4) 지리적·문화적·역사적 접근의 용이성
 - 문자와 감성이 유사하며, 지리적 여건상 사후 A/S가 용이하고 조선족 등 가용 인적자원이 풍부

약 점 (Weakness)

- (1) 국내 환경산업체의 영세성
 - 중소기업 중심의 우리 환경업체 특성상 자금동원력의 부족으로 BOT 방식의 프로젝트 수주에 한계
 - *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이 86%, 연평균 매출액이 20억원에 불과
 - 대외협력기금(EDCF) 등 차관성 자금의 지원조건(이자율 등)과 규모가 선진국 대비 열위

(2) 해외 환경시장에의 개별 접근에 따른 협조체제 미흡

- 기업간 상호 협조체제와 범정부적인 지원시스템 미비

(3) 중국내 현지 여건 및 정보부족으로 인한 장벽 존재

- 관련 정책·제도의 미비, 공정한 시장질서의 미형성
- 시장정보, 현지 기업 및 기술 관련자료, 입찰 등 제도정보 부족

기 회 (Opportunity)

(1)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및 투자의 확대

(2) 민간투자 여건 등 중국 내 시장질서의 개선

- 기초환경시설의 건설·운영재원확보를 위한 배출금 징수제의 적극 도입

(3) 지방정부의 외국 자본·기술 도입을 통한 환경개선노력 가속화

(4) 환경설비업종 분야의 시장이 점차 형성

위 험 (Th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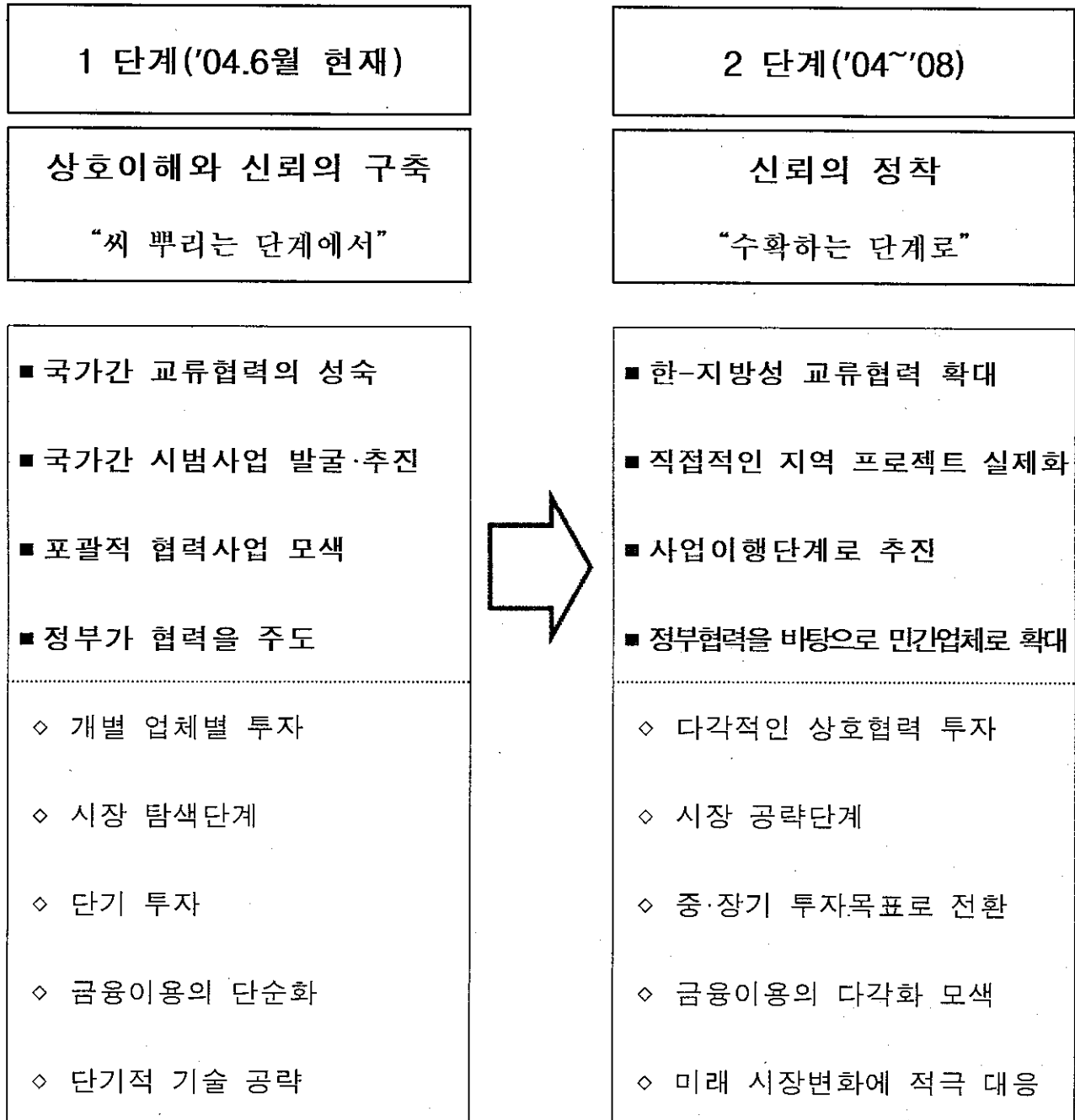
(1)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 치열

- 독, 일, 미국 등 선진국과 세계 우수환경기업들의 치열한 각축 진행

(2) 중국의 급격한 기술 추격으로 한·중간 기술력의 격차 단축

(3) 중국의 자국기업 보호주의가 여전히 존재

IV. 대중국 환경산업 진출의 향후 전략



V. 중국 진출을 위한 세부방안

중국 진출전략의 선택·집중화

- ① 중점 진출지역·분야의 선정
- ② 지역별 유망 시범프로젝트 발굴·추진
- ③ 진출 거점의 지방화
- ④ 수출유망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 활용
- ⑤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우리기술의 현지화 도모

현지 진입장벽의 완화

- ① 양국 정책·산업정보의 공유
- ② 중국 현지정보의 수집·제공
- ③ 우수 환경기술·산업의 홍보 강화
- ④ 초청연수 확대 실시
- ⑤ 「한·중 환경산업센터」의 전략적 활용
- ⑥ 양국 민·관 교류 및 협력의 지속 추진

국내 기반여건의 조성 및 강화

- ①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 ② 산하기관 및 지자체별 지역 전담제 도입
- ③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책 병행
- ④ 미래 환경기술의 개발

V-1. 중국 진출전략의 선택·집중화

1 중점 진출지역·분야의 선정

☐ 시장전망이 높은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역량을 집중

- 중앙정부 투자정도, 시장 규모, 업계 선호도, 교류·협력관계 등 고려하여 10개 최우선 지역을 선정
- 10개 최우선 지역으로 상해, 요녕, 북경, 산둥, 사천, 호북, 광둥, 길림, 절강, 강소성을 선정
- 단, 시장상황 등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는 탄력적으로 변동 가능

☐ 행정·시장 수요가 높고 중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분야를 위주로 중점 진출분야 선정

- * 물 : 오폐수처리 및 중수이용 통합기술·설비, 고농도 폐수(매립지침출수 및 축산폐수) 처리기술·설비, 소규모 정수처리 기술·설비
- * 대기 : 중소규모 발전소 탈황 기술·설비
- * 폐기물 : 의료폐기물 소각기술·설비, 유해폐기물 처리기술·설비

☐ 선정된 우선 진출지역별 중점 진출분야를 Matching시켜 효율적으로 공략

- * (예) 요녕성 : 오폐수처리 및 중수이용시설, 탈황설비
- 사천성 : 중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10대 우선 진출지역 선정>

순위	10·5 계획 중점사업 투자액	환경산업 매출액 (2000년)	업체 선호도	1인당 GDP	한중경제 교역규모	협력관계 (무순)	종합순위
1	북경시	절강성	북경시	상해시	광둥성	요녕성	상해시
2	산둥성	강소성	산둥성	북경시	강소성	사천성	요녕성
3	하북성	산둥성	요녕성	천진시	산둥성	산둥성	북경시
4	호북성	광둥성	상해시	절강성	상해시	호북성	산둥성
5	중경시	요녕성	광둥성	광둥성	천진시	북경시	사천성
6	강소성	호남성	길림성	강소성	절강성	상해시	호북성
7	상해시	하남성	사천성	북건성	요녕성	산서성	광둥성
8	광서성	북건성	흑룡강성	요녕성	북경시	호남성	길림성
9	하남성	상해시	하북성	산둥성	북건성	길림성	절강성
10	사천성	하북성	천진시	흑룡강성	길림성		강소성
11	광둥성	흑룡강성	절강성	하북성	하북성		호남성
12	절강성	섬서성	하남성	신강성	산서성		하북성
13	요녕성	북경시	호북성	길림성	하남성		천진시
14	흑룡강성	호북성	호남성	호북성	흑룡강성		산서성
15	천진시	산서성	강소성	해남성	안휘성		흑룡강성

우선지역



2 지역별 유망 시범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 매립지, 오·폐수처리장 등 수주규모가 크고 연계상품의 동반수출 등 파급효과가 높은 BOT형 프로젝트(플랜트) 수출에 주력

○ 국가간 대형 시범프로젝트 발굴·추진을 통해 플랜트 수출의 활로 개척

□ 요녕성 등 우선 진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프로젝트를 발굴 하여 플랜트 수출에 모멘텀으로 활용

○ 10개 지역, 10개 시범프로젝트를 국가간, 국가-지방省간 협력 사업으로 선정, 최우선적으로 실시

○ 가급적 상징성이 큰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직접수주와 동시에 중국전역에의 홍보효과 제고

□ 기업간 협업체제 등 자본 및 기술의 상호보완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프로젝트 추진방식 모색

○ 대-중소기업간 수직분업, 중소기업간 수평분업 등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유도하여 상호보완 효과를 극대화

□ 환경부-산업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프로젝트의 발굴과 진출방식 및 참여기업의 선정 등 일련 절차 수행

* (예)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요녕성 탈황설비 시범프로젝트 추진
EDCF 차관을 활용한 사천성 폐기물매립지의 건설사업 추진

3 진출 거점의 지방화

□ 기존의 중앙정부(북경) 이외에도 실제 환경프로젝트가 발주·시행되는 지방정부와의 직접협력을 위한 토대 마련

- '환경산업·기술 지방설명회' 및 '한-지방省 환경산업 협력회의'를 확대 실시하여 지방정부와의 협력기반 구축

* '03년에 산둥·호북 2개省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04년 중에는 5~6개省에 대해 실시 예정(요녕, 사천은 既 실시)

- '한-지방省 환경산업협력 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정례화를 통해 대화채널 마련

* '04년 하반기 중 제1회 한-요녕성, 한-사천성 환경산업협력 촉진위원회 개최 예정('04.4월 구성원칙 합의)

□ 인력교류, 환경산업정보 전시용모니터 현지입주 및 센터 설립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진출거점 확보

- 10개 우선 진출지역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집중 실시하고 省 환보협회에 인력 파견

- 중간단계로 省 환보국 또는 환보협회 내에 전시용 모니터를 입주시켜 우리 업체정보 및 보유기술의 DB를 제공·홍보

- 최종적으로는 「한-지방省 환경산업센터」의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4

수출유망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 활용

□ 중국 환경시장의 초기진입에 큰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대외 경제협력기금(EDCF)의 활용을 극대화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對중국 환경분야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이자율, 공여국 설비구매비율, 상환기간) 및 승인절차 개선

* 현재까지 대중국 승인액(22건, 2,468억원) 중 환경기초시설분야는 1건, 21억원 (0.85%)에 불과 (상수도 3건, 생태환경 1건 포함시 256억원, 10.9%)

* 주요국가 차관조건

	한 국	일 본	독 일
- 이자율	2.5%	0.75%	0.75%
- 상환기간	30년(10년 거치)	40년(10년 거치)	40년(10년 거치)
- 구매비율	70%	제한 없음	50%

□ 양국간 금융협력을 통한 장기저리의 정책금융 지원 활용

- 신디케이트 Loan 방식 및 연불자금,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등 다양한 용자자금의 활용을 제고

- 신디케이트 론
 - 우리 수출입은행과 중국 중앙·지방은행이 상호협조 용자를 하는 형태
- 연불자금
 - 수출거래대금을 외상으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분할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원 효과를 부여하는 형태
- 프로젝트 파이낸스
 - 현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없이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과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외국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기법

5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우리기술의 현지화 도모

□ 한·중 공동기술개발의 추진을 통해 「맞춤형식」 기술진출 모색

- 중국측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용기술을 함께 개발·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현지 시장화로 연계
- 수요조사, 사업 심의·선정을 거쳐 '04.6월 중에 1차년도 사업 착수

• 1차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경과

- '04.2월 중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총 159건(韓 57, 中 102)의 수요가 조사
- 촉박한 일정 관계로 이 중 16개 과제만 사업계획서 제출
- 16개 과제에 대한 3차례 심의과정(서면→패널→총괄심의)을 통과한 6개 과제가 6월 중 협약 체결 후 사업 착수
- 사업착수 예정인 6개 과제 분포는 조사결과 하·폐수처리 2건, 폐기물 처리·재활용 2건, 호소관리 1건, 계측장비 1건 (주관연구기관은 産 3, 學 1, 研 2)

※ 2004중국측 수요조사 결과(102개 과제)

- 실용과제 87건(85%), 공공과제 3건(3%), 원천과제는 12건(12%)
- 분야별(총12개) 수요순위는 하·폐수처리(25.5%), 폐기물 관리(17.6%), 생태계 복원·관리(15.7%), 대기관리(11.8%) 순으로 분석

□ 공동기술개발의 확대실시를 통해 우리나라 우수 환경기술·산업의 중국 현지화 제고

- 현행 차세대사업 국제공동(위탁)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체제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예산배분, 선정·심의절차 등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
- 지원대상 사업수 및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중국 환경시장 진출에 기폭제로 활용

V-2. 현지 진입장벽의 완화

1 양국 정책·산업 정보의 공유

☐ 양국 정부가 자국의 기업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상대국에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

- 한·중 각국의 기업이나 기술 관련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 「한·중 환경산업센터 제1회 공동운영위원회」('04.4월, 북경)에서 기업정보 상호 제공시스템 구축 원칙에 대해 합의

- 로컬업체와 합작회사 설립 및 공동입찰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관련정보 파악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및 시행착오 저감 기대

☐ 우리나라 우수 환경정책·제도를 번역·제공하여 중국 現地化 유도

- 중국의 현안사항을 위주로 우리 환경법규·기준·기술 등 상세 中文자료를 제공하여 중국 정책·법규 수립시 벤치마킹토록 유도

* 1차로 금년 6월 중 감염성 폐기물 등 유해폐기물 처리와 탈질·탈황처리에 대한 자료 제공 예정

- 기존의 「Green Korea」, 「年刊 환경부 주요업무계획」, 「Korea Environmental Policy Bulletin(KEPB)」의 번역·배포

2 중국 현지정보의 수집·제공

☐ 중국의 정책동향과 프로젝트 발주 등 시장정보의 수집·제공 강화

- 환경관리공단 KONETIC의 중국 IP 기능을 보완·강화하여 중국의 환경관련 주요정책과 시장정보를 적시에 제공
- 기업의 진출전략 수립에 참조토록 시장정보를 지역, 분야, 규모, 투자유형 등 카테고리별로 분석·가공

☐ 중국 입찰제도, 환경기준 등 시장진출에 필수적인 정보의 제공

- 중국의 입찰관련 법규의 분석을 통해 입찰방식, 절차, 구비서류, 심사방법과 실제사례를 제공
- KOTRA 등 관련기관과 협조, 중국어 계약서 및 견적서 양식 제공
- 중국 환경법규의 국문 번역본 및 주요 오염처리기준 및 시설기준의 제·개정 동향에 대한 자료 제공

☐ 중국 진출(희망)기업간 상호정보 공유의 場 마련

- 기업간 정례협의체 구성을 지원하여(주관: 한국환경산업협회) 투자 정보, 성공 노하우 등 중국 진출에 필요한 정보 공유
- 중국 진출 성공업체의 사례발표, 통상·법률·금융 전문가와 현지 전문가들의 강연회 개최

3 우수 환경기술·산업의 홍보 강화

□ 한국환경산업·기술설명회 개최 및 중국 현지 국제전시회 파견 등 민·관 환경산업협력단의 활동 강화

-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환경산업·기술설명회의 현장 견학프로그램 강화

* 제3회 한국환경산업·기술설명회는 '04.11월 개최예정(서울)

- 중국 현지에서 개최되는 유명 국제전시회에의 파견회수 증대 및 예산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

□ 中文 「한국 환경산업·기술」 설명책자 제작·배포

- 우수 환경산업체의 회사 약력 및 보유기술을 소개하는 책자를 중국어로 제작, 省·市 정부, 지방 환보협회 및 駐中 한국기관에 배포
- 동 자료를 전자문서화하여 '한·중환경산업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환보산업협회, 과학환경연구원 등 중국 주요기관 홈페이지에 링크배너 설치

□ 「한국환경산업·기술동향」 Mailing 서비스 실시

- 중국 내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월별(또는 분기별) '한국환경산업·기술동향'을 메일링서비스로 제공

4 초청연수 확대 실시

□ 중국 공무원 및 업체관계자의 초청연수 확대 실시

- 2005년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장·단기 연수사업을 실시하여 한국 환경산업 및 기술의 우수성을 전파('03년 32명→'04년 32명→'05년 36명)
- 대상자의 범위도 중앙·지방정부의 환경보호국, 발전개혁위, 건설청, 설계원 등 환경기초시설 발주 및 투자유치 관계자로 다변화
- 고위급 정책결정자(중앙: 과장급 이상, 지방: 부국장 이상)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 아울러,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와 협조하여 KOICA 환경 분야 연수사업의 확대 모색 ('04년 5명 예정)

□ 중국의 행정 및 시장수요에 부합되는 시의적절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우선 진출지역의 현안분야를 선정, 관련시설과 기업을 집중 시찰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환경산업·기술에 대한 직접수요를 창출

* '04년에는 북경(의료폐기물), 요녕(탈황설비), 사천(오수·폐기물처리) 실시 예정

□ 「Post Study-tour 프로그램」 내실화

- 연수자의 DB 구축·관리를 강화하고 메일링 서비스 등 지속적인 고객관리 서비스를 실시

5 「한·중 환경산업센터」의 전략적 활용

□ 센터의 공동운영을 통해 양국간 정책협의 및 수행기능 강화

- 양국 정부, 기업관계자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동 기술개발, 투자포럼, 정보교류 등 중요 협력과제 지원

* 제1회 공동운영위('04.4월, 북경)에서 공동위원장(환경부 환경정책실장, 환보 총국 과기사장)을 선임하고 공동운영규정을 채택

- 중국 국가환보산업협회 직원의 파견·상주를 통해 현지 정부·업체와의 유대관계를 제고

□ 기업들의 중국진출 조과정을 지원하는 토털서비스 기능 강화

- 인력 확충, 차량 임차 등을 통해 중국 시장·기업정보 제공, 사업 파트너 연결, 사업편의 제공기능 강화

□ 양국 환경 관계자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쉼터마당 성격의 '한·중 환경인의 집'으로 운영

- 환경산업센터를 접근성이 용이한 북경 시내로 확대·이전('05.5월)
- 한국 환경산업의 정보 D/B 구축, 전시모니터 설치·운영, PC 등 편의시설 제공

6 양국 민·관 교류 및 협력의 지속 추진

□ '03년 정상회담 및 환경장관회의 합의사항의 후속이행 강화를 통해 정부간 협력을 계속 확대

○ 공동기술개발, 시범사업 발굴·추진 등 정부간 협력을 계속 강화

□ 한·중환경산업센터의 공동운영, 한·중환경산업투자포럼의 개최 정례화 등을 통해 양국 환경산업협회 및 기업체간 교류를 강화

○ 한·중환경산업센터 공동운영위원회 운영(제2회 위원회, '04.下 예정), 환경산업투자포럼 활성화(제2회 포럼, '04.下 예정)

□ 한·중·일 환경산업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민간전문가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한·중 환경산업 협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

○ 중국의 주요 환경현안을 논의의제로 선정하여 양국간 정책공유 및 산업체와 민간전문가 교류의 장으로 운영

* 제4회 RT('04.6월, 서울)에서는 중국의 현안사항으로 시장수요가 급증하는 의료폐기물 등 위험폐기물 관련 정책·기술을 중점 논의

V-3. 국내 기반여건의 조성 및 강화

1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 ☐ 환경산업수출 유관기관과 기업체로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중국 및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통합 지원
 - 정부(환경부, 재경부, 외교부, 산자부), 유관기관(KOICA, 수출입은행, 대한상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업체 관계자로 구성
 - 기업애로 수렴 및 시장정보 공유와 해외시장 진출방안, 환경산업 육성방안 등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장으로 운영

2 산하기관 및 지자체별 지역 전담제 도입

- ☐ 산하기관별로 1~2개의 지방省을 전담하여 산업체 지원 및 직접 진출활동 전개
 - 기관별 강점분야와 지역별 집중 공략분야를 연계시켜 교육연수 실시, 정책·기술 제공, 정보수집, 시범사업 발굴·추진, 한·중간 환경산업회의 개최 등의 협력사업 전개
- * (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사천성 폐기물 매립지
환경관리공단 : 요녕성 상수설비, 강소성 온라인 계측장비
- 각 기관별로 중국 및 해외 환경시장 전담인력 육성

☐ 본부-산하기관간 「중국진출 T/F」 구성·운영

- 추진사항 점검, 상호 보완책 마련, 통합전략 수립·시행 등 총괄 기능 수행

☐ 한·중 자매결연 도시간 환경산업협력 유도

- 지방설명회 개최 등 한-지방省 환경산업협력 추진시 국내 자매결연 지자체를 동참·연계시켜 후속사업 이행의 효과를 제고

3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책 병행

☐ 국내 환경수요의 지속적인 창출

- 환경정책 및 기준의 선진화를 통해 국내 환경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

☐ 유망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 IT, BT를 접목한 바이오 환경업종, 자원이용업 등 고부가가치업종 육성

☐ 환경서비스업을 특화 산업으로 중점 개발

- 환경컨설팅업, 환경오염복원업 등 신종 서비스업의 창출

☐ 환경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가속화

4 미래 환경기술의 개발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촉진

- '01~'10년간 14,350억원을 투자, 현안환경오염 처리기술, 중장기 전략적 환경기술, 미래 원천기술을 개발
- 시장성·성공가능성이 높은 대형과제(Eco-Star 프로젝트)를 사업단 방식으로 발굴·지원

□ 우수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 신기술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및 '환경 신기술정보시스템' 등 환경기술 DB 구축·운영
- 환경기술 발표회 개최·참가 지원 및 '사이버 환경기술전시장'을 통해 기술개발자와 수요자간 기술이전을 활성화
- 환경기술 산업화 자금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개발된 우수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산·학·연 유관기관간 최적의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을 구비한 「첨단 환경기술개발·사업화 단지(Eco-Valley)」 조성
- 환경기술인력 육성 5개년('03~'07) 계획에 따라 고급인력을 육성

Ⅵ. 전략 추진일정

진출지역의 선택·집중화

Ⅰ 중점 진출지역·분야의 선정

① 우선 진출지역 선정

- '04.6월 中 :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후 확정

② 우선 지역별 중점 진출분야 선정

- '04.8월까지 :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후 확정

Ⅱ 지역별 유망 시범프로젝트 발굴·추진

① 환경부·업계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 '04.7월~ : 시범프로젝트 발굴, 추진방식 및 참여기업 선정 수행

② 省별 시범프로젝트 발굴·추진(계속)

- 요녕·사천('04.7~), 산둥·북경('04.10~), 절강·강소('05.上~), 호북·광둥('05.下~), 상해·하북('06.上~)

Ⅲ 진출 거점의 지방화

① 「한국 환경산업·기술 지방설명회」 개최(계속)

- 절강·강소('04.7~8월), 산둥('04.9월), 호북·광둥·상해·하북('05年中)

* 산둥·호북('03.9월), 요녕·사천('04.4월) 既 실시

② 한-지방성 환경산업협력 촉진위원회 운영

- 요녕·사천('04.7~), 산둥·북경·절강·강소('05年中), 호북·광둥·상해·하북('06年中)

③ '한국환경산업·기술DB' 전시모니터 설치

- '05.下 : 1차로 요녕성·사천성 환보국 또는 省환보협회에 설치
- '06년~ : 우선 진출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설치

④ 「한-지방성 환경산업센터」 설치

- '06~'08년 : 우선 진출지역을 추진성과·전망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연 1개씩 단계별 설치

Ⅳ 다양한 금융지원책 활용

① EDCF 자금 활용방안 협의

- '04.下 : EDCF 자금의 중국 환경분야 투입 확대방안 협의
- * 부처간 정책현안 혁신협의체 구성 예정(환경부-재경부)

② 정책금융 지원 활용방안 검토·추진 ('04.下~)

Ⅴ 공동기술개발

① 한·중 공동기술개발 추진(계속)

- '04.6初 : 1차년도 사업 협약체결 및 착수(6개)
- * '04.2~5월간 1차년도 사업의 수요조사 및 사업심의 既 실시
- '04.下 :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한·중 정책협의 실시
- '05~'08년 : 공동기술개발 계속 추진

현지 진입장벽의 완화

① 양국 정책·산업정보의 공유

① 환경기업정보 D/B 구축

- '04.下 : 환경기업정보 확인체제 운영
- '05.上 : 환경기업정보 D/B 구축·운영

② 한국 우수환경정책·제도 제공

- '04.6월 中 : 감염성 폐기물처리와 탈질·탈황처리 자료 번역·제공
- '05년~ : 중국측 수요 위주로 정책·제도 자료 제공(반기별)

② 중국 현지정보의 수집·제공

① 중국 정책·시장정보 제공(계속)

- '04.6~ : 환경관리공단 KONETIC의 중국 IP 기능 강화
- '04.12월 中 : 「환경산업 중국 진출가이드(가칭)」 발간(연1회)

② 중국정보 공유의 場 운영

- '04.6~ : 「중국환경비즈니스 전문가 과정」 운영(환경산업협회)
- '04.9~ : 진출(희망)기업간 정보협의체 운영

③ 우수 환경기술·산업의 홍보 강화

- ① 민·관 환경산업협력단의 활동 강화(계속)
- ② 中文 「한국 환경산업·기술」 책자 발간(계속, 연1회)
 - '04.12월 中 : 2004년도版 발간
- ③ 「한국 환경산업·기술동향」 메일링 서비스
 - '05년~ : 중국내 전문가 대상으로 메일링 서비스 실시

④ 초청연수 실시

- ① 중국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계속)
 - '04년 中 : 단기1차(20명,6월), 단기2차(10명,11월), 장기(2명, 7~12월)
 - '05년까지 : 100인의 친한인사 구축 및 D/B 관리

⑤ 「한·중 환경산업센터」의 전략적 활용

- ① 센터 공동운영 강화
 - '04.下 : '제2회 한·중 환경산업센터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 '04.12월까지 : 중국 환보산업협회 직원의 센터 파견완료
- ② 센터의 지원기능 강화
 - '05.上~ : 센터 이전 및 '한·중 환경인의 집'으로 운영

⑥ 양국 민·관 교류 및 협력의 지속 추진(계속)

국내 기반여건의 조성 및 강화

①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관협업체 운영

- ① 유관기관·기업체 정례협의체 구성·운영('04.7월~)

② 산하기관 및 지자체별 지역전담제 도입

- ① 「중국진출 T/F」 구성 및 지역전담제 실시('04.下~)
- ② 한·중 자매결연 도시간 협력 유도('04.下~)

③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책 병행(계속)

④ 미래 환경기술의 개발(계속)

〈중국진출전략 세부방안 추진일정〉

세부방안 시기	2004				2005				2006				2007				2008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進出戰略의 選擇·集中化〉																				
① 중점지역·분야 선정																				
· 우선진출지역 선정																				
· 지역별 중점분야 선정																				
② 유망프로젝트 발굴·추진																				
·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 省별 시범사업 발굴·추진																				
③ 진출거점의 지방화																				
· 지방설명회 개최																				
· 지방성 협력촉진위 운영																				
· 한국환경산업DB모니터 설치																				
· 한·지방성 환경센터 설치																				
④ 다양한 금융지원책 활용																				
· EDCF 활용방안 협의																				
· 금융지원 검토·추진																				
⑤ 공동기술개발																				
· 한중 공동기술개발 추진																				
〈現地 進入障壁 緩和〉																				
① 기업·정책정보 공유																				
· 한중 환경기업정보 D/B 구축																				
· 한국 환경정책·제도 제공																				
표 설명	사업구상·협의·개발								사업추진·이행											

세부방안 시기	2004				2005				2006				2007				2008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② 현지정보 수집·제공																				
· 중국정책·시장정보 제공																				
· 중국정보 공유체계 마련																				
③ 환경기술·산업 홍보강화																				
· 환경산업협력단 활동 강화																				
· 한국환경산업 안내책자																				
· 환경산업동향 Mailing																				
④ 초청연수																				
· 중국 공무원 초청연수																				
⑤ 센터의 전략적 활용																				
· 공동운영 강화																				
· 센터기능 강화																				
⑥ 민·관 교류·협력 지속																				
· 투자포럼 등 교류진행																				
〈國內基盤의 造成·強化〉																				
① 해외진출 민관협의체 운영																				
② 지역전담제 도입																				
③ 환경산업 육성책 병행																				
④ 미래 환경기술 개발																				
표 설명	사업구상·협의·개발								사업추진·이행											

VII. 참고자료

참고-1	중국진출 성공·실패사례
------	--------------

Ⅰ 성공사례

○ 사례 1 : 면밀한 사전 정보수집

- 현지 컨설팅사를 통해 유사품목을 납품하는 합작회사의 현황을 조사하여 진출방식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별로 경쟁회사 현황을 파악하여 진출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 공략

○ 사례 2 :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

- 현지 세미나 및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을 홍보하고 중국에 IP를 두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를 하여 하수처리장 프로젝트 등을 수주

○ 사례 3 : 기술·설비에 대한 확실한 신뢰성 각인

- 현지 연구를 통해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약 1년여에 걸친 Pilot Plant의 설치·운영을 통해 중국측의 전폭적인 신뢰를 확보

○ 사례 4 : 경쟁력의 확보

-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면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상품 판매에 주력

○ 사례 5 : 중국 전문가의 적절한 활용

- 중국 진출 초기단계에 중국 현지정보와 환경시장에 밝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

○ 사례 6 : 철저한 중국 현지화

- 조선족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정확한 의사전달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중국인과 친밀해지려면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를 하였으며, 중국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도 넓힌 것이 현지인들의 마음을 여는 계기로 작용

○ 사례 7 : 현지인맥 및 인력의 활용

- 아직까지 중국은 '관시(關係)'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현지 인맥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중국 진출에 매우 긴요

* 예를 들어 화북지방(하북성, 산서성)은 청화대학 출신들이, 화동지방(절강성, 안휘성, 강서성, 복건성, 산둥성)은 동제대학 출신들이 공직을 포함하여 환경 분야에 주도권을 갖고 있음

- 주요 계약 체결시 중국 현지 변호사로 자문을 받아 risk를 줄였음

○ 사례 8 : 한·중 환경산업센터의 활용

- 북경 소재 '한·중 환경산업센터'에 입주하여 많은 중국 환경관련 인사들에게 회사 및 보유기술에 대한 인지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센터의 양국 업체 중개활동을 적절히 활용

② 실패사례

○ 사례 1 : 중국 현지정보 및 동향 파악 부족

- 중국 시장동향에 대한 자료와 정책 발전동향의 이해가 부족하여 장기적인 사업계획 및 전략 수립에 미흡하였고, 적절한 투자시기 결정에 오류를 범함

○ 사례 2 : 회사 브랜드 가치 제고에 실패

- 회사의 Brand Name의 이미지를 먼저 키우고 난 연후에 한국 기업의 일부라는 인식을 주는 접근이 필요하나 한국이라는 국가를 먼저 제시하는데 주력하여 시장 진출에 실패

○ 사례 3 : 현지 법규 및 상관행에 대한 애로 존재

- 중국 공사발주, 수주체계, 입찰제도, 계약, 통관 등 관련절차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사업참여 기회 제한 등의 애로 발생

○ 사례 4 : 중국 현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술 고집

- 중국 현지 여건에 대한 면밀한 고찰 없이 한국 상황에 맞는 기술로만 밀어붙이는 자세는 반드시 진출 실패로 이어짐

○ 사례 5 : 중국 문화·관습에 대한 이해 부족

- 언어 표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구두표현을 신뢰하면 곤란하며 반드시 문서화가 필요

○ 사례 6 : 가용자금의 부족

- 중국 환경시장에서의 사업상 특징이 자금 회수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유동자금이 진출성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참고-2	중국 국가환경보호 10차 5개년 계획
------	----------------------

1] 중점사업 및 투자규모

분 야	내 역	예 산
수질관리	· 하·폐수처리능력 향상 · 축산 및 양식업의 수질개선 등	2700억 元
대기질관리	· 석탄세정가공 ·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 도시 청정에너지 공급 · 산업배기가스처리 등	2800억 元
폐기물관리	· 도시 쓰레기 및 위험폐기물 안전처리 · 산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과 처리 등	900억 元
생태계보호	· 15개 국가급 생태기능보호지구, 120개 국가급 중점 생태시범지구, 100개 생태농업縣을 건립 · 40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규제 시범사업 수행 · 50개 국가급 자연보호지구 건설 · 현행 155개 국가급 자연보호지구의 보호기능 강화	500억 元
기초능력 구축	· 환경모니터링 및 생태환경/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 · 생태기능지구/유역/구역 등에 대한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기능 강화 · 데이터 구축 및 홍보기능 강화 · 법집행능력 강화 ·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	100억 元
합 계		7000억 元

② 중점프로젝트 (2차 그린프로젝트)

- 총 1137개 항목에 걸쳐 2620억 원이 투입되는데 그 중 수익성이 높은 10개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1450억 원 소요

(1) “三河三湖” 하수처리장 건설 프로젝트 (317억 위안)

- 三河(淮河, 海河, 遼河)에 152개 하수처리장, 三湖(太湖, 巢湖, 滇池)에 29개 하수처리장 및 배관설비의 신설 또는 증축

(2) 三峽댐 건설지구 물오염 방지 사업 (146억 위안)

- 하수처리장 88개를 건설하여 도시하수 처리능력 187만톤을 확보하고 쓰레기처리장 69개를 건설

(3) 南水北調(東線) 오염 방지 사업 (88억 위안)

- 南水北調 수리사업의 수질기준을 3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 73개 하수처리장 건설

(4) 渤海 푸른 바다 가꾸기 사업 (16억 위안)

- 발해인근 도시(環渤海 도시지역)에 11개 하수처리장 건설

(5) “兩控區”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공사 (120억 위안)

- 37개 석탄화력발전소 탈황설비 공사로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연간 105만톤 감축

(6) 맑은 물, 맑은 공기 북경 만들기 사업 (536억 위안)

- 도시 대기환경 개선 프로젝트 25개 사업, 21개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도관 배관공사로 1일기준 하수처리능력 208만톤을 확보

(7) 국가급 자연보호지구 및 생태기능보호지구 건설 사업 (30억위안)

- 70개 국가급 자연보호지구를 건설하고 長江, 黃河, 珠江, 淮河, 遼河 발원지, 洞庭湖, 鄱陽湖, 松花江(嫩江)의 범람지역, 黑河유역, 塔里木河 하류 등 15개 생태기능보호지구 건설

(8) 위해(유해)폐기물 집하 처리 사업 (195억위안)

- 8개 지역에 유해폐기물 집하처리장을 건설, 연간 72만톤의 유해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충하고 의료폐기물 집하처리시설 113개 건설

(9) 국가 환경모니터링망 구축사업 (25억위안)

- 대기 및 산성비, 지표수, 해양환경, 생태환경, 방사능환경, 주요 오염원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전국적인 환경 측정망을 구축하고 위성 데이타전송네트워크, 주요유역 斷面수질 예보시스템을 구축

(10) 환경과학기술 개발 사업 (13억위안)

- 환경 관련 과학 소프트웨어, 환경오염 및 보건, 청정생산라인, 원격 위성응용기술 및 환경측정, 주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기술, 생태환경보호, 핵 안전 및 방사능 관련 과학연구, 환경보호 첨단기술 개발 등 8개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중국 10·5계획 중점프로젝트 현황(省·市별)

(단위: 만 위안)

성/시	수처리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생태보호		총 사업수	총 투자액
	사업수	투자액	사업수	투자액	사업수	투자액	사업수	투자액		
북경	32	1,566,768	25	2,977,616	11	226,436	7	588,900	75	5,359,720
산둥	57	572,762	12	767,654	14	548,598	17	224,791	100	2,113,805
하북	71	893,372	13	523,836	4	48,187	7	216,563	95	1,681,958
호북	24	730,855	14	436,655	18	213,190	8	69,173	64	1,449,872
중경	31	866,263	3	120,659	33	350,850	4	6,972	71	1,344,744
강소	40	644,846	3	231,338	8	181,178	10	200,785	61	1,258,147
상해	3	1,035,500	-	-	4	191,429	1	1,900	8	1,228,829
광서	12	498,891	13	268,136	11	84,798	6	81,400	42	933,225
하남	36	572,639	12	140,895	10	61,971	10	130,432	68	905,937
사천	20	369,474	12	160,300	20	183,930	19	131,000	71	844,704
광둥	15	436,186	2	240,000	6	164,432	1	1,700	24	842,318
절강	18	551,883	4	139,157	10	115,750	1	2,920	33	809,710
요녕	18	354,373	7	185,881	9	176,847	8	49,024	42	766,125
흑룡강	12	381,756	3	293,308	3	42,349	7	41,741	25	759,154
천진	13	355,300	1	250,000	4	53,993	4	39,887	22	699,180
섬서	12	154,921	8	169,518	7	47,077	14	258,617	41	630,133
호남	11	209,097	11	155,070	8	93,154	10	115,334	40	572,655
운남	3	361,300	-	-	1	4,000	14	193,563	18	558,863
길림	11	253,685	6	174,009	2	22,423	7	56,002	26	506,119
안휘	32	406,166	-	-	2	22,912	5	69,420	39	498,498
내몽골	6	157,858	7	148,671	2	35,450	19	141,059	34	483,038
산서	10	175,210	8	154,360	4	24,875	3	32,000	25	386,445
귀주	1	5,121	6	219,530	4	19,850	4	119,370	15	363,871
강서	8	149,000	4	27,441	6	46,640	7	79,350	25	302,431
북건	5	187,554	-	-	2	36,000	5	12,200	12	235,754
감숙	5	95,469	5	86,525	2	17,671	5	27,784	17	227,449
닝하	4	52,412	2	58,069	3	5,500	3	65,900	12	181,881
해남	3	60,800	-	-	3	16,209	4	25,718	10	102,727
서장	1	23,000	-	-	3	6,700	8	45,040	12	74,740
신강	-	-	-	-	-	-	6	44,500	6	44,500
청해	-	-	1	22,338	-	-	3	12,000	4	34,338
합계	514	12,122,461	182	7,950,966	214	3,042,399	227	3,085,044	1,137	26,200,870

참고-3 중국 환경시장 관련자료

1 중국 환경시장과 선진국시장 비교분석

	중 국	선진국(美·日·유럽)
기본특징	· 초기단계	· 성숙단계
성장률	· 향후 15~20년간 15~20% 성장	· 10% 미만
기술설비시장	· 오폐수 및 쓰레기처리시장 초기단계 · 서비스업은 망야기	· 포화상태(수요 < 공급) · 서비스업이 70% 이상 차지
기술특성	· 일반상품화 · 기술취득 용이	· 특수상품 성격 (기업과 정부가 최대 소비자)
시장경쟁상황	· 비교적 혼란 · 가격요소가 구매선택의 중요요소	· 경쟁질서 구축 · 구매후 서비스의 질이 중요요소
기업간 관계	· 구조조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음 · 신규진입 기업수 증가세	· 기업간 합병 및 제휴가 급속히 진행중
기술수준	· 사후오염 처리기술 설비 위주 · 청정기술·상품시장은 초보단계 · 높은 발전가능성 보유	· 청정기술·상품, 하이테크 기술의 시장점유비율 상승

2 중국 환경오염개선 투자액 상세 추이(1998~2002)

	1998	1999	2000	2001	2002
총 투자액(억 위안)	723 (100)	820 (100)	1,060 (100)	1106.6 (100)	1363.4 (100)
도시환경기초시설	456.0 (63.2)	478.9 (57.5)	561.3 (52.9)	595.7 (53.8)	785.3 (57.6)
산업부문 노후오염원 개선	122.0 (17.2)	152.7 (18.3)	239.6 (22.6)	174.5 (15.8)	188.4 (13.8)
신규 프로젝트 “三同時”	142.0 (19.7)	191.6 (23.0)	260.0 (24.5)	336.4 (30.4)	389.7 (28.6)
국민총생산액 (억 위안)	78,586	82,054	96,363	95,800	102,000
GDP 점유율 (%)	0.92	1.00	1.10	1.15	1.33

[3]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환경산업 현황(2000년)

지역	업체 총수(개)	종사인원(명)	연간 수입 총액(억위안)
전국	18,144	3,176,178	1689.9
북경	375	31,157	39.8
천진	313	22,926	20.7
상해	745	40,466	62.7
중경	141	10,397	7.9
하북	994	83,740	59.7
산서	643	104,586	28.7
내몽골	243	18,750	4.4
요녕	872	156,946	133.7
길림	393	42,182	24.6
흑룡강	464	798,845	48.1
강소	1,711	163,879	209.9
절강	1,967	159,964	245.0
안휘	387	58,425	20.3
북건	965	48,273	66.2
강서	321	29,269	22.4
산둥	1,071	162,392	187.1
하남	831	820,159	94.4
호북	381	39,293	32.7
호남	1,114	77,083	100.4
광둥	1,564	108,690	143.5
광서	399	25,580	24.1
사천	420	32,915	17.8
귀주	223	17,013	12.4
운남	538	35,933	16.2
섬서	559	53,382	43.9
감숙	249	17,420	11.1
청해	28	1,019	2.7
신강	65	3,187	3.8
해남	93	5,468	3.1
닝하	74	6,811	2.7
서장	1	28	-

- 2003~2006년간 북경, 심양, 항주, 광주, 서안, 중경, 무한 등에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센터 건설
- 2006년까지 年배출량 1만톤 이상의 300개 중점 규제기업의 위험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개축

<위험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투자 규모>

(단위 : 억 위안(프로젝트 수))

총투자액	위험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능력건설 분야			
	종합위험폐기물 처리센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방사성폐기물 저장소	대기 모니터링	기술센터	등기교환 센터및NW	방사성W 관리기술센터
149.2억위안 (2.24조원)	69.8	68.9	5.5	1.75	0.6	1.7	1.95
	(31개)	(300개)	(31개)	-	-	-	-

○ 재원조달방안

- 위험폐기물/의료폐기물 처리시설 : 중앙정부의 지원금(국채발행을 통한 자금)과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조달
- 인프라건설 : 국가급은 중앙정부, 지방급은 지방정부에서 투자
- 기업발생 위험폐기물 : 원칙적으로 기업이 투자하되, 정부는 융자 혜택, 재정지원 등의 조치 실시
- 운영경비 : 국발위, 환보총국 등 5개 부처의 「위험폐기물 처리 부담금 징수제도 시행을 통한 위험폐기물처리 산업화 촉진에 관한 통지」에 의거, 배출부담금으로 조달